

# 경계의 확장에 따른 건축 공간의 모호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mbiguity of Architectural Space by the Expanded Boundary

홍성욱\* / Hong, Sung-Wook

이경훈\*\* / Lee, Kyoung-Hun

김용성\*\*\* / Kim, Yong-Sung

### Abstract

"Boundaries" are divided in various types and expressed in diverse ways. Since the progress of socio-cultural, scientific, technological and ideological changes has been so fast, spaces, including cities and their architecture, are also changing rapidly. It is really hard to catch the general flow of modern architectural situations and the logic behind them since they are very complicated and diverse. It is even more complicated to determine which architectural phases represent the same period and how to provide the accompanying characteristic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boundary has infinite possibilities. By reorganizing the structure of the ambiguous boundary and what the ambiguous boundary means itself in the process of thinking of creative designers as well as encompassing spatial design. This study will suggest a formative possibility that can be applied as space.

키워드 : 경계, 모호성, 유동성, 복잡성, 불확정성

Keywords : Boundary, Ambiguity, Flexibility, Complexity, Indeterminacy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의 우리는 다원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은 다중성, 시간성, 복잡성에 관하여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과학, 기술, 철학, 예술을 담은 인간의 삶은 모호해지는 경계 안에서 연관되며 복잡한 양상을 지닌다. 또한 창조적 과정을 통해 무한히 풍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즉, 새로운 통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오래 건축 세계의 구현은 경계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경계는 공간의 영역을 형성하며 하나의 영역을 다른 영역과 구분 짓고, 매개하면서 영역 구성 과정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원적인 세계 속에서의 오늘날 공간은 더 이상 단순하고 고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복잡하고 유동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로 간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점차 변형되고 변이되는 불확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는 건축 공간에서 보여지는 경계의 모호성에 주

목함으로서, 현대 건축 공간의 구분과 통합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영역구성의 매개역할을 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여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1.2.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건축 경계의 역사적 배경과 이론적 개념 고찰을 통해 경계에 대한 물리적 요소들과 건축에서 나타나는 경계의 역할을 정의한다. 이를 통해 현대 시대정신의 변화가 건축 공간과 경계의 인식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핀다. 마지막으로 현대 건축가들의 작품사례를 중심으로 경계의 확장에 따른 건축 공간의 특성과 구성방법에서의 표현특성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기본으로 하여 모호한 경계의 공간성격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경계의 모호성에 관한 고찰

### 2.1. 모호한 경계의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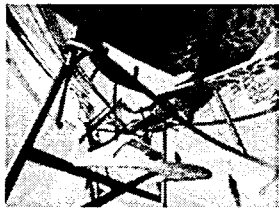
현대의 문화가 복잡하고 다원적인 성격을 띠는 혼잡한 상황에 이르면서 예술의 영역이나 공간의 인식에 있어서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다양성이 대두되었다. 오늘날 물질적인 구축이

\* 정회원, 국민대, 테크노디자인대학원 건축전공, 석사과정

\*\* 정회원, 국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정회원,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교수, 건축학 박사

라는 건축관인 서구의 존재론, 혹은 형이상학의 기초 개념의 구조나 사고를 해체하여 재구축하는 현대 건축의 흐름 속에서 공간은 유동적이며 부드럽고, 경계는 모호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 경계가 모호해진 유동적인 공간

공간을 독립된 실체로 인식하는 건축적 배경이 무너지면서 공간·매스, 내부·외부, 대지·건물, 구조·장식 등 건축의 역사에서 보여 지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즉, 지금까지 받아들여지던 건축공간의 기초와 개념, 범주들이 흔들리고 있다. 이것은 건축공간이 다

른 것들과 섞이고 관계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건축 공간과 형태가 하나로 지각되는 현상이라든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바닥, 벽체, 천장의 구분이 사라지고 하나의 연속된 면으로 이해되고, 공간 요소간의 경계가 모호해 지고 있다.

## 2.2. 경계의 개념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간을 말하면 평평한 면에 의해 둘러싸인 내부공간을 떠올린다. 공간이 무엇인가에 둘러싸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인식의 산물이다. 즉, 공간은 그 경계에 따라 지각<sup>1)</sup>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세워진 요소의 경계가 세워져 있는 장소만을 공간으로 지각하는 것은 아니다. 개개의 작은 공간에서부터 자연의 영역까지 확장되어 우주 전체를 포함한다. 건축공간은 단순히 집의 개별적 방뿐 아니라 외부의 조망을 한정하는 자연공간도 포함한다.

공간에 있어 경계는(boundary of space) 그 공간을 한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간의 성격을 반영하며 서로 다른 공간 사이에서 관계맺음의 결과로 나타난다. 공간 안에서 인간은 실질적인 체험을 하고, 시각적 상상력이 가미된 정신적 체험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경계는 단지 내·외부를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형을 통하여 관계를 조정한다.

<표 1> 경계의 발생

구분	모호한 경계의 발생	특징
단절된 경계		- 공간의 전이성, 중간 영역성, 매개적, 중성적인 공간 성격 - 대상의 의미가 다변적, 다의적으로 변역 가능
통과경계 / 틈새		- 희미한 암시만이 존재하는 개괄되고 증식되는 구조 - 위계를 가지는 대상사이의 상호침투성과 비교정적인 형태
교섭의 경계		- 다른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

1)여기서 지각은 공간의 체험을 포함하며 눈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감각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우리의 감각은 특정한 곳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다. 공간 안에서 이동 시 우리는 자신의 몸의 움직임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공간의 지각은 주관적인 변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 2.3. 경계에 의한 영역구성

데카르트 이후의 이성애 의한 가치관과 과학혁명의 주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 실재성(objectivity)에 대한 과대한 가치부여가 건축에까지 적용되면서 공간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물리적인 양으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우주관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줬, 코페르니쿠스(Copernicus)는 우주의 중심은 없으며 경계는 무한히 펼쳐진다고 하였다. 그 결과 중심과 경계가 사라진 공간은 장소성과 유한한 시간성이라는 인간의 가치를 침식했다. 그러나 공간은 과학과 수학의 새로운 가치관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본질적이며 유한한 측면이 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무한하고 균질한 공간이 아니다.

영역(territory)은 공간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며 상대적이며 경험적인 장소를 말한다. 영역이란 공간, 그리고 인간의 두 벡터에 의해 결정되며, 공간 조절의 유니트(a unit of spacial control)로서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심리적 경계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개념이다. 경계는 영역적 형태의 물리적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형태에 의한 공간 단위가 에워쌈(enclosure)의 경계 형태로만 영역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경계는 형태적인 표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경계 자체가 하나의 영역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영역은 형태적 요소의 개방과 폐쇄의 중간적인 상태로써 공간으로 확장하거나,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공간 사이의 원활한 접촉을 위한 연결공간으로서의 구성적 특성도 가진다. 영역은 브링크만<sup>2)</sup>의 말처럼 서로 다른 공간이 서로 다른 형태를 낳고, 반대로 각기 다른 형태로부터 다른 공간의 체험을 제공한다.

## 2.4. 경계의 모호성 발생

근대건축에서는 '명확하면서 애매함이 없는 단순형태<sup>3)</sup>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 경계를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의 의미가 의문시 되고 있다. 현대 사회의 불안정적인 관계성을 반영하므로 많은 경우 경계가 암시적으로 나타난다. 공간을 이루는 표피는 전통적인 경계의 영역을 해체하고 확장하여 그 위에 행위와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내부와 외부 그리고 그 사이의 경계로서 외피의 개념이 아니라, 스킨(skin)과 같이 내부와 외부로 소통하게 하는 경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이다.

모호한 경계는 사물의 정체성을 불확정하게 만들고, 사용자가 그것을 해석하게 만들어 관습적 인식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치 있는 건축은 여러 가지 차원의 의미와 시점의 해석을 요구한다.<sup>4)</sup> 따라서 경계의 모호성은 무한히 해석 가

2)Albert Erich Brinckmann, 훌륭한 건축은 내부와 외부의 공간조직의 통합에 의해서 표현된다고 하였다.

3)Le Corbusier, 장성주 역,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Towards a new Architecture, 1927), 태림문화사, 1999, p.37.

능한 자율성을 담고 있으며 공간을 새롭게 생성하는데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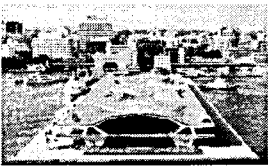
<표 2> 불확정적 요소들에 의한 건축적 변이

불확정적 요소	모호한 건축적 변이
공간의 복합성	- 예측 불가능한 일들의 전개
동선의 불확정성	-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동선
프로그램의 불확정성	- 프로그램의 상호작용에 의한 규정
형태의 비정형성	- 시간에 변화하는 유연성을 제공
요소의 비물성	- 규정할 수 없는 요소의 성격

### 3. 모호한 경계에 대한 분석 연구

#### 3.1. 건축공간의 표현적용 사례

##### (1) F.O.A - Yokohama Port Termi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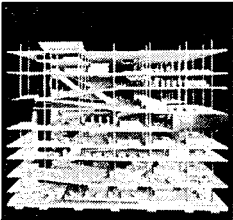


<그림 2> FOA, Yokohama Port Terminal

요코하마 선착장은 땅의 역할을 재정의 하는 것에서 시작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기능에서 파생하는 흐름이 갖는 힘들을 바닥에 표현한 것이다. 유동적인 바닥면의 형성은 계속적인 차이를 갖는 고정되지 않는 열린 조직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은 스스로 동선을 결정하게 되고, 이러한 얽힌 흐름들은 도시민들과 입항자간의 자연스러운 접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바닥 면은 배경이나 표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분화하고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sup>4)</sup>

##### (2) Rem Koolhaas - Jussieu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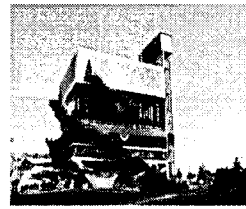
<그림 3> Rem Koolhaas, Jussieu Library

공간내부의 도서관의 방문객들은 책과 정보의 세계를 탐험하고 매혹된다. 평면은 도로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 도시적 요소의 시스템, 광장, 공원, 기념카페, 상점, 기념비적인 계단 등을 창출하는 도로인 것이다. 이렇듯 공간내부에서 작동하는 동적 체계는 프로그램들의 층(Layer)으로서 서로

관통하는 힘을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위상적 전환은 건축공간에 있어서 평면은 물론 단면으로도 나타난다. 수직이동체계는 평면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환 개념의 폭이 유연해지면서 그 경계가 불분명하게 되어 수직성과 수평성이 공유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 (3) MVRDV - Expo2000 Holland Pavil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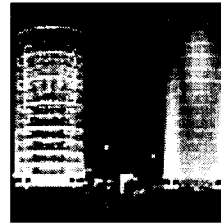
Expo 2000의 네델란드관은 네델란드 Leidschenrijn 지역의 수직적인 중앙공원 계획안(1997)이 현실화된 것이다. MVRDV



<그림 4> MVRDV, EXPO2000 Holland Pavilion

는 은유적으로 '새로운 자연' 이라는 이름으로 기술과 자연의 융합, 그리고 자연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과 인공성에 대한 제안을 했다. 다층에 배치한 프로그램들은 기존의 자연에 대한 확장이자 그 인공성에 대한 상징으로서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4) Toyo Ito - Tower of winds



<그림 5> Toyo Ito, Tower of winds

도요 이토의 '바람의 탑'은 상호작용성에 의한 유동적인 표현이 가장 잘된 작품으로 1986년 요코하마 역 앞에 있는 지하 환기구를 조형적으로 감싸기 위해 환기탑을 거울로 감싸고 외부는 구멍 뚫린 알루미늄을 이용해 타원으로 가렸으며 그 안에 수천 개의 램프를 설치한 조형물이다. 이러한 가변적인 연출은 공간의 비물질적인 성향을 통해 시간을 따라 빛과 소재의 적절한 적용으로 공간의 비물질적이고 가변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게 된다.<sup>6)</sup>

#### 3.2. 모호한 경계의 표현적 특성

앞에서 살펴 본 모호한 경계의 표현특성들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 적용 사례에 분석에 따른 모호한 공간성격 도출

모호한 경계의 표현적 특성	사례에 따른 공간성격 도출
공간의 조합과 혼성	- 자연의 유동성 - 상호관입과 중첩 - 영역성의 모호함 - 영역의 동시성 - 복잡한 가치
전이 공간의 매개체	- 중간 영역적 성격 - 매개적 공간 - 영역의 동시성 - 복잡한 유기적 구조 - 다른 공간으로 변질 가능성
움직임과 유동성	- 예측 불가능성 - 역동적 가치 - 무한히 가변적 - 자연 생태의 형태구조의 흐름
경계의 형태적 물성	- 경계의 비물질성 - 새로운 영역으로의 변형 가능성 - 감각적인 경험, 상상 속의 이미지 도출

다양한 구성에 있어서는 고정된 관계란 있을 수 없다.<sup>7)</sup> 경계의 모호성은 공간 안에서 새로운 상황, 움직임, 사건, 프로그램의 발생과 충돌 등으로 내부의 형식과 질서를 모호하게 창출한

4)Rovert Venturi, 임창복 역, 건축의 복합성과 대립성, 동녘, 1995, p.31.  
5)장근수, 아운 아파두라이의 미디어스케이프를 통한 건축공간에 관한 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2004.

6)황규광, 뉴미디어에 의한 유동적 공간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03.  
7)임창복 역, 앞의 책

다. 즉, 프로그램의 변형, 새로운 기능과 컨텍스트(context)가 조합되고 서로 관계하여 모호성을 야기 시킨다. 공간의 관계성에 의한 모호한 경계는 명쾌한 의미가 결여되어 있지만 그 대신 의미의 풍부함을 가져다준다.

#### 4. 결론

본 연구는 모호한 경계의 발생에서부터 구성요소들과 구조를 파악하고 모호한 경계의 표현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한 모호한 경계의 표현특성들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네 가지의 경향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공간의 조합과 혼성을 통해 상호관입과 중첩, 그리고 경계의 확장으로 공간의 영역성을 모호하게 함과 동시에 동시성을 갖는 복합적 공간을 창조한다.

둘째, 중성적 전이 공간의 매개체로서 중간 영역적 성격과 함께 다른 공간으로 변질 가능한 공간의 연속적인 완충공간을 나타낸다.

셋째, 자연 생태의 형태구조의 흐름과 비슷한 양상을 가지며, 유기체의 움직임과 같이 확장되고 분산되며 변형 과정의 모호성을 통해 무한히 가변적인 유동성을 보인다.

넷째, 경계의 형태적 비물질성을 통해 감각적인 경험 혹은 상상 속의 이미지를 새로운 영역으로의 구체적인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서 경계의 모호성은 공간이 규정된 의미를 가진 고정된 것이 아닌 우주의 질서와 같이 생성하여 대상의 관계 속에서 공간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 참고문헌

1. Jurgen Joedicke, 윤재희·지연순 역, 건축의 공간과 형태, 세진사, 1995.
2. Rovert Venturi, 건축의 복잡성과 대립성, 기문당, 1995.
3. C. Norberg-Schulz, 김광현 역, 실존·공간·건축·태림문화사, 1997
4. 김원갑, 건축과 해체, 세진사, 2000.
5. 신병윤, 경계없는 형태와 공간을 향하여, Spacetime 시공문화사, 2002.
6. 스키모토 토시마사, 고성룡 역, 큐브에서 카오스로, 도서출판 발얼, 2002.
7. 대한건축학회, 건축공간론,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2003.
8. 양용기·도규환·백경무·정원박·김용재·이호정 공저, 건축형태분석, 기문당, 2003.
9. 김한수, 현대건축에 나타난 공간의 연속성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1.
10. 서동수, 경계에 의한 건축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동의대 석사논문, 2002.